

사회

# 공공 인 광주의 1월 ... '30寒1溫' 18일간 눈 내려

한반도가 공공 얼었던 지난 1월, 광주 역시 동토(凍土)의 한 달이었다. 지난해 말부터 엄습한 한파는 1월 내내 맹위를 떨쳐 광주지역은 48년 만에 월 평균기온이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각종 기록을 양산했다.

지난 3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월 1일~30일 광주지역 평균기온은 영하 3.4도로 나타나 평년기온(1981~2010) 0.6도보다 4도 낮았다.

지난 48년 동안 평균기온이 영하 3도 이하로 떨어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올해는 '북극 진동'의 영향으로 영하 3.4도까지 내려갔다. 이는 1940년 기상 관측 이래 월 평균기온이 중 네 번째로 낮은 기온이다. 가장 추웠던 해는 1963년으로 영하 4.5도를 기록했다.

## 48년만의 강추위 한달 내내 맹위 떨쳐 최저기온 평균 영하 7.1도 낮기온도 영하

올 1월 들어 광주의 일 평균기온은 단 하루(1월 5일)를 제외하고 계속 영하권에 머물렀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균도 영하 7.1도로 영하 8도를 기록했던 1963년 이후 48년 만에 가장 낮았다. 낮 최고기온은 평균도 평년보다 4.6도 낮은 0.7도로 1963년(영하 0.5도) 이후 최저 수온을 기록했다.

이달 광주에서 최저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진 날은 28일, 낮 최고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한 날도 11일이었다. 평균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진 날도 5일이나 됐다.

올 1월 들어 눈이 내린 일수는 18일로, 지난 2005년 이래 가장 많은 일수를 기록했다. 2010년 12월, 2009년 11월, 2007·2008년 9월, 2006년은 2일에 불과했다. 그에 비해 지난해 12월 30일 내린 폭설 이후 많은 양의 눈이 내린 것은 아니어서 올 1월 한 달 동안 내린 눈의 양은 18.9cm이 그쳤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올해 1월 한파의 원인과 관련, 북극의 고온현상으로 중위도까지 내려

온 찬 공기가 한반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원래 겨울에는 북극의 차가운 기온과 북반구 중저위도의 따뜻한 기온이 대치하는데, 이 과정에 북극의 기온이 차가우면 상공의 공기 회전이 빨라져 한기가 회전 소용돌이 속에 갇히면서 북반구 지역으로 내려오지 못한다. 하지만 최근 북극의 공기 회전력이 약해지면서 회오리에서 빠져나온 찬 공기가 북반구 중위도로 내려오면서 추위를 몰고왔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한파는 북극의 고온현상과 북극진동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기상이변 가능성은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오늘 날씨

밤안개 주의!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밤에 짙은 안개가 끼겠다.

구분	구분	기온
광주	구름조금	-5/8℃
목포	구름조금	-4/7℃
여수	구름조금	-2/9℃
나주	구름조금	-7/9℃
완도	구름조금	-3/8℃
구례	구름조금	-8/8℃
해남	구름조금	-8/9℃
장흥	구름조금	-8/10℃
순천	구름조금	-4/9℃
영광	구름조금	-8/7℃
진도	구름조금	-4/9℃
전주	구름조금	-8/7℃
군산	구름조금	-8/6℃
남원	구름조금	-11/7℃
옥산도	구름조금	1/5℃

구분	종양	파고	체감지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주의	높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목욕	00:42	06:10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1.5m	여수	13:32	18:59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08:36	01:53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1.5m		20:25	14:35

◇주간날씨

날짜	2(수)	3(목)	4(금)	5(토)	6(일)	7(월)
날씨						
최저/최고	-2/8	-1/6	0/6	0/7	1/9	0/9



“할머니 건강하세요” 지난 31일 오전 광주시 서구 쌍촌종합사회복지관에서 때때웃을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앙상맞은 표정으로 세배를 하려하자 노인들이 활짝 웃으며 반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설 연휴 암체운전 헬기로 단속

### 경찰청 17대 동원키로

설 연휴에 무인단속카메라나 단속 경찰관이 보이지 않는다고 교통법규를 위반해 버스 전용차로나 갓길을 달리던 차량을 보게 된다. 경찰청은 설 연휴가 끼어 있는 1~6일 헬기를 띄워 공중에서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이나 갓길 통행 위반, 갓길 주·정차 등 암체운전을 단속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기간에 투입하는 헬기는 모두 17대로 버스 전용차로가 운영되는 경부고속도로 상공에는 2시간마다 1대씩 총 3대(서울청 소속 2대, 경기청 소속 1대)가 고대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이를 헬기 가운데 서울청 소속 1대에는 증거 수집용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돼 있고, 나머지 2대에는 좀 기능에 동영상 촬영까지 할 수 있는 대형 망원렌즈 장착 카메라를 든 순찰대원이 탑승한다.

100~150m 상공을 날면서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 번호를 촬영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이다. 경찰은 서해안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주요 국도에서도 각 지방청 헬기 14대를 동원해 하루 2차례 순회하면서 각종 암체운전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단속뿐만 아니라 혼잡 또는 병목 구간, 우회도로 소통 정보 등을 다양한 홍보매체에 제공해 편리한 귀성, 귀경이 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연철뉴스

## 광주시, 5·18 재심 심사분과위원 추천 접수

광주시는 지난 31일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들을 전원 교체하기 위해 관련 단체 및 실과에서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6차 관련 여부 심사위원들이 전원 사임함에 따라 광주시는 다음달까지 변호사 2명, 의사 2명, 교수 2명, 5·18 기념재단 등 4명으로 구성된 여부 심사분과위원회를 다시 구성, 오는 9월까지 재재심 대상 360명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여부와 상이 결정된 78명의 장애등급을 판정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신문사 옥석구분 도미노

### 경기 안산시 “5000부 미만 광고 안준다” ... 전남 지자체도 추진

발행부수 5000부 미만 신문에 행정 광고를 양기로 결정된 지자체들이 늘면서 신문사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한 차등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 이어 안산시가 지난 31일 한국ABC협회(신문잡지부수 공사기구)의 발행 5000부 미만의 신문사에는 행정공고를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남의 모 지자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언론사의 출입제한

과 부수별 차등 광고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전국 지자체의 공감을 얻고 있어 기존 행정 광고의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산시는 또 사실왜곡·허위과장 보도 언론사, 신문발행이 일정치 않은 언론사, 공갈·협박·변호사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기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다른 직업을 가진 기자 등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안산시는 지역 언론사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행정광고 배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방간지의 경우 한국ABC협회가 발표한 발행부수 기준으로 A~D등급으로 나뉘고, 주간지는 한국ABC협회 가입사를 대상으로 2등급으로 나뉘고 광고를 차등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에 출입하는 지방 언론사 가운데 13개사가 광고를 받지 못하게 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청년 ‘취업전문상담사’ 양성

### 광주시 남구

광주시 남구가 미취업 청년들을 ‘취업전문상담사’로 양성해 점진적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지역공동체 청년스마터 사업으로 ‘취업전문상담사 멘토링 양성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대상인원은 지역 내 미취업 청년 15명으로 남구는 이들을 전문직업학

원에 위탁교육해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지원한 뒤 동 주민자치센터 및 취업상담창구에 배치할 방침이다. 남구는 또 이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신규 대상자를 모집, 구체적인 업무와 기술 등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취업상담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남구는 자격증 취득에 성공한 이들의 취업을 위해 취업상담사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스터, 인력개발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광주 ‘사랑의 온도’ 92도

### 모금 20억3200만원 그쳐 전남은 100.2도 목표초과

금해 목표액인 22억원 달성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모금액 목표를 잡고 사랑의 온도를 측정 한 이래 광주는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다. 사랑의 온도는 기부액 목표를 100도로 잡고 모금액을 온도로 환산해 표시하는 것. 지난 31일 광주 모금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시작해 이날 마감한 ‘희망 2011 나눔캠페인’ 결과, 광주는 20억3200만원을 모



## 편백나무는 무병장수의 나무입니다.

- | 탁월한 피톤치드 효과
- | 이토피 효과
- | 비염·천식 치유효과
- | 쾌적한 심리욕 효과
- | 해충 방지 효과
- | 집중력과 기억력 증가
- | 면역기능 증대 자연치유 효과
- | 소취 및 유해물질 중화

日本産히노기(편백나무)로 만든 가구!

- 목조주택 & 아파트 리모델링 전문업체
- 친환경 제품
  - 한국 편백, 일본 편백
  - 황토보드, 게르마늄 분말(황토, 게르마늄 토탈)
  - 친환경 흡음재, 친환경 단열재, 불연칼라 내장 마감재, 목조보드

- 각종 내장재
  - 특수목, 남미산천연테크재, 독일산 아이돌(오일스테인) 연동도어, 보석유리, 접합유리방염, 필름합판, 문짝 물림
- 편백나무 인테리어 시공 전시장 2층
- 편백가구 전시장 4층

## 편백나무 인테리어 상담 및 편백주문제작 전국·전남북·시·군 대리점 모집

판매 및 창업문의: 010-3609-4321

편백 나무 가구 전문업체  
**광남종합목재건설사(주)**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4-26  
TEL 062-652-2935·2223 FAX 062-651-5141  
www.oknwood.com



▲장농 ▲5단 서랍장 ▲침대 ▲족욕기 ▲독서대 ▲쌀통 ▲베게(편백나무사이+결명자사이) ▲베게(편백나무사이+결명자사이) ▲편백나무베게

| 판매품목 | 장농 · 5단서랍장 · 수납공간 · 불박이장 · 족욕기 · 독서대 · 책상 Set(의자 · 책꽂이) · 침대 · 쌀통 · 편백베게 · 베게(편백 사이 + 결명자 사이) · 편백가습기 수백

| 협력사 | 우딘페이퍼몰딩 | 태원목재 호남총판 | KCC석고보드총판 | 라파즈 석고보드 총판 | KCC 강화마루 | 동화마루 대리점 | 레토피아 합성목재 호남총판